

유신헌법·긴급조치 40년만에 공식 사망... “사필귀정” 한목소리

긴급조치 1·2·9호 위헌결정 ... 의미와 반응

송기숙 교수 등 광주·전남 피해자 53명 국가 위법행위 정당한 배상 받을 길 열려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근거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광주·전남 지역 긴급조치 9호 관련자 50여명을 비롯, 시민사회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 때 발동돼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조항인 박근혜 정부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역사의 심판”, “사필귀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당시 징역 4년·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병기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긴급조치가 헌법 정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1978년 6월 27일 당시 전남대 문리과대학 송기숙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들이 당시 유신체제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의 국가주의적 요소 등을 정면 비판하고 학도호국단 설치 등 교원교육 강화에 따른 ‘학원 병영화’를 반대하며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연행되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다. 박 교수를 비롯, 긴급조치 9호 관련자는 53명에 이른다.

박 교수 등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받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 지난해 12월 20일 재심에 들어가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교수는 또 “박정희 정권 아래 권력에 굴종한 사법부가 역사의 법정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뉜 형식적 민주주의가 신장된 의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조치 관련, 모든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보장받게 됐고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 배상 및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정용화 광주·전남 민주화동지회 공동대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 뒤늦게나마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긴급조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치가 헌법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긴급조치 1·2·9호는=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지난 1972년 개헌을 통해 3공화국 헌법을 4공화국 헌법으로 대체하면서 만들어진, 이른바 유신헌법에 포함된 대통령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유신헌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보장받게 됐고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 배상 및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정용화 광주·전남 민주화동지회 공동대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에 위헌 결정이 났는데, 뒤늦게나마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긴급조

치를 근거로 1974~75년 발령한 긴급조치 1~9호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초법적 도구로 쓰였다.

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를 금지했고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975년 선포된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조치 별로는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 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신 잔재 아직도 살아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백 소장은 “아직도 유신의 잔재가 살아있다”며 “과거청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돼지머리를 믿고 사는게 편하겠다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등 헌법재판관 때 보수 입장 대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때
구원투수 나서 조직 살려

헌법재판소 역사상 검사 출신으로
는 최초로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
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법리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
루 거쳤으며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는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무려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
하는 등 ‘강골 검사’의 면모를 보이

도 했다.

또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
성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 투수로 나서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으로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
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 당
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예외차
시민 통행을 원칙적으로 막은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꼽힌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
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동훈 전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

을 냈다.

수사에서는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
이지만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후
배 검사들로부터 신망을 얻었으며 헌
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도 합리적
이면서도 소탈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이다.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
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부산(60·사시 23회) ▲제물포
고·서울대 법대 ▲속초지청장 ▲현재
헌법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기획과장 ▲대구고검 차장 ▲대
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
부지검장 ▲헌법재판관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계·재계 경험 풍부 中企·벤처 전문가

한정화 중기청장 내정자

미국서 박사학위...KIST 근무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역임

학계와 재계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중소기업·벤처 전문가이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아대에서
MBA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
다.

1977년 현대중공업 기획관리실
서 잠시 근무한 뒤 KAIST로 옮겨 11
년 동안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99
년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명됐
으며 이후 한국벤처연구소 소장, 한국
전략경영학회 회장, 한국중소기업학

회 회장, 한국벤처산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3월부터 3년 동안 두산중공
업 사의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와 아산나눔재단 이사를 맡고 있
다.

저서로는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벤처 창업과 경영 전략’ ‘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 전략’ ‘회사의 미래
를 결정짓는 기업이 정신의 힘’ 등이
있다.

부인 박은영(55)씨와 1남1녀를 두
고 있다.

▲광주(59) ▲서울대-美 조지아대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중소
기업학회 회장 ▲한국벤처산업연구원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곳으로 흐른다!
(Water, Water Everywhere Only If We Share!)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3. 3. 22(금) 10:00~12:20
- 장소 : 서재필 기념공원(전남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소재)
- 주최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후원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K-water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군, 육군 제31사단, 육군 제1179부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세계 물의 날 부대행사

- 호소 및 수중정화활동, 그린 아카데미 환경사랑 콘서트, 바이오 순환림 식재행사, 물사랑 체험학습, 심포지엄 등 개최(10개 행사)

mev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